

페르시아 아케메네스왕조 시대 아파다나계단 알현도에 묘사된 복식 연구

장 영 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강사

Costume Styles in the Reliefs of Audiencescene in the Apadanastairs of the Persian Achaemenid Period

Young-soo Yi-Chang
Dept. of Cultural Anthropology HanYang University

(2002. 12. 2. 접수)

Abstract

The following paper deals with Persian costume of Achaemenid period in Persia.

The study about Persian costume is very important for the research of European and Asian costume. However, its theme is insufficiently examined until now, so we were not able to recognize the Persian costume culture properly. For the reason mentioned above, this study is necessary for understanding the Persian costume culture at that time correctly.

The research was undertaken with the information on historical archaeological art sites, analyzing the dressing carved in the reliefs of king's Audiencescene in Apadanastairs in Persepolis.

The results driven from the study are as the following:

There are two styles in the reliefs of Audiencescene in Apadanastairs. One is long robe with pleats, which is called Persiandress. The other is tunic and trousers. Persiandress, long robe with pleats which was the typical dress in Persia at that time was originally the dress of Elamites, who occupied a very advanced civilization in this region. This robe was a borrowing by the Persians from their Elamite neighbours as formal dress.

There is the Persiandress worn by king, prince, guardsmen, servants in the reliefs of Audiencescene in Apadanastairs. It is inferred from this that the dress was popularly worn in Persian court. Tunic and trousers, the typical clothing of riding race, is worn by Median who is one of the relatives of Persian. The tunic has narrow sleeves and is reaching the knees. The trousers are ending at the ankle. Beyond the clothing, various headgear are also examined according to the social status and nationality. These are being precious materials for study on the Persian costume among the relations with other surrounding countries.

Key Words: Achaemenid(아케메네스왕조), Persepolis(페르세폴리스), Apadanastairs (아파다나계단),
Persiandress(페르시아인의 옷), Mediancostume(메디아인의 옷)

I. 서론

페르시아(Persia) 아케메네스(Achaemenes) 왕조 다리우스(Darius)황제가 페르시아 대제국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페르세폴리스(Persepolis)에 세웠던 궁전은 현대인으로 하여금 기원전 4, 5세기의 인류의 문명을 관찰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궁전은 기원전 330년 그리스 알렉산더(Alexander)대왕의 페르시아 정복으로 인해 불타버리고, 지금은 궁전의 기둥과 그 흔적, 왕을 알현하는 알현실(Apadana 홀)로 향하는 긴 계단(Apadana 계단)의 일부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¹⁾. 남아 있는 기둥의 거대한 규모에서 그 당시 궁전의 웅장함과 그것을 세웠던 페르시아인의 용성함을 짐작할 수 있으며, 그 건축기술과 세부형식에서 그리스 형식을 발견하여, 그 당시 활발했던 국가간의 문화교류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아파다나 계단에 왕을 알현하는 알현도와 그 주변 종족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조공물을 받치기 위해 그 지방 특산물을 손에 들고 그들 고유의 의상을 입고 줄지어 서있는 조공도가 부조로 남아있어 우리는 그 시대 페르시아인과 페르시아 인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들의 의복의 형태와 그 지방 문물들을 관찰 할 수 있다.

인류의 최초의 문명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인접해 그 문명을 흡수하고 또 그리스 문명과 접하면서 다방면에서 그 문화와 교류했던 페르시아 문화, 특히 대 제국을 형성했던 아케메네스(Achaemenes) 왕조에 대한 연구는 동서양의 문화연구에 큰 의미가 있기에 지금까지 국외 많은 학자들(고고학자, 문화인류학자)에 의해 행해져왔다. 그러나 복식연구에 있어서는 많은 논란

을 거듭해왔고 아직도 부분에 따라서는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형편이다.

예로부터 우리 나라는 동서문화 교류로인 비단길(Silkroad)을 통해 서역의 문화와 문물을 접하며 그 영향을 많이 받아왔기에 페르시아 문화에 대한 연구는 우리 나라 문화의 연구에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이 지역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고 연구도 미흡하여 그 연관성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기에 이 논고에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고고학적, 미술사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페르시아의 문화중에서 복식문화를 분석함으로써 페르시아의 문화연구에 초석을 마련하려 한다.

1. 역사적 배경

기원전 8-7 세기에 메소포타미아 동쪽, 이란의 북서쪽에서 유목민들의 이동과 만남은 복식사에 중요한 한 획을 긋게되었다.

페르시아 인은 인도-유럽의 유목민족으로 북쪽에서 카스피해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다. 페르시아 인이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기원전 843년 앗시리아 왕 살마나싸르 3세(Salmanassar III: B.C. 859-824)에 의해서이다. 그는 그의 역사기에서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파르샤(Parsa)²⁾라고 자칭하는 종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들이 페르시아인이다. 이들은 우르미아(Urmia) 호수의 서쪽, 오늘날 이란 북서쪽 아세르바이잔(Aserbeidschan)에 살고 있었다고 했다. 이 곳에서 사방으로 다른 종족들³⁾의 침입에 시달렸던 페르시아인들은 기

1) 이 페르세폴리스(Persepolis) 궁전에 대한 연구는 1931-1934년에 독일의 건축가이며 고고학자인 Ernst Herzfeld 에른스트 헤르쯔펠트, 가 시카고의 오리엔트 연구소의 후원으로 페르세폴리스를 다시 발굴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Gerold, Walsler 게롤트 발저 (1980). Persepolis 페르세폴리스, Tuebingen: Ernst Wasmuth, p. 8

2) 파르샤(Parsa)는 고대 페르시아어로 "페르시아 인의 도시(Stadt der Perser)" 라는 뜻이며, 그리스어로는 "페르세폴리스(Persepolis)" 이다. 그 종족에 속하는 사람들 즉, 페르시아인을 뜻하기도 했다. Heidemarie Koch 하이데마리 코흐(1992), Es kuendet Dareios der Koenig... 다리우스 왕이 이르기를....., Mainz/Rhein: Philipp von Zabern, p.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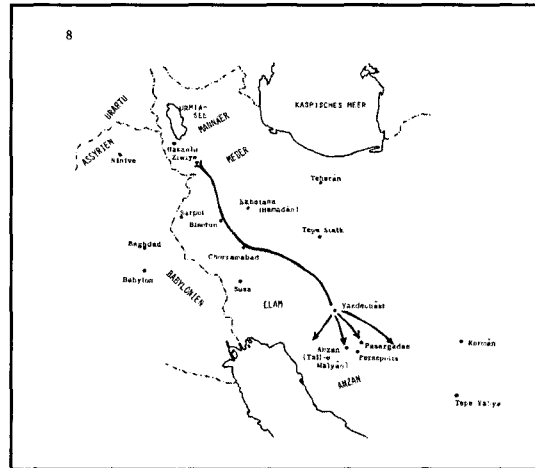
3) 북서쪽에 우어알테르(Urartae)족, 동쪽과서쪽에 메디아인(Media), 남서쪽으로 앗시리아가 있었다. [메디아인은 페르시아와는 가까운 친척 종족으로 이들은 일찍이 남쪽으로 이동하여 지금의 하마단(Hamadan, 그 당시 에크바타나, Ekbatana) 에 정착하여 강한 메디아 제국을 형성했다.], Walter Hinz 발터 힌즈(1969). Altiranische Funde und Forschungen 고대이란의 발견품과 그 연구, Berlin: Walter de Gruyter & Co., p. 68; H. Koch, ibid., p. 7

원전 700년경 아케메네스 왕조 아래에서 남쪽으로 이주하여 그 당시 엘람인(Elamite)⁴⁾들이 살던 곳 안잔(Anzan) 지방(지금의 Tall-e Malyan, 탈에 말얀: 페르세폴리스 Persepolis에서 서쪽으로 50km)에 도달하였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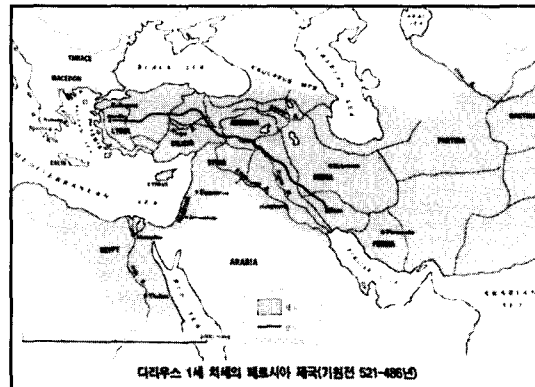
이곳의 다른 종족들과 마찬가지로 앓시리아(Assyrien)의 강한 세력에 시달리던 엘람 인들은 기원전 705년 앓시리아의 위대한 왕 사르곤 2세(Sargon II)가 죽자, 엘람의 왕 슈트룩 나훈테(Shutruk-Nahhunte)는 페르시아의 지도자 아케메네스(Achaemenes)와 협력하여 앓시리아를 물리쳤다⁶⁾. 그 후 페르시아는 150년간이나 엘람인들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것은 후에 아케메네스 문화에 새겨져 전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고대 페르시아어가 아직 없었을 때 그들은 엘람어를 사용했으며 다리우스 황제가 기원전 520년에 그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비스툰(Bisutun, Behistun) 기념비에도 엘람어를 사용했다⁷⁾.

기원전 555년 페르시아 왕 키로스(Kyros III) 황제는 메디아(Medien)를 정복하고 대 페르시아 제국의 초석을 마련했다. 기원전 539년 앓시리아가 망하자 키로스 황제는 스키타이인(Skyten, Saken)을 정복하여 대제국을 만들고자 스키타이인들과 전쟁을 시작했으나 키로스 황제는 이 싸움에서 죽고 만다. 그 후 키로스의 아들 캄비세스(Kambyses)의 조카인 다리우스(Darius)가 즉위하여 대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전쟁을 계속하여 마침내 기원전 521년 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되었다(그림 1, 1-1).

II. 페르세폴리스(Persepolis)에 있는 아파다나(Apadana)계단에 묘사된 알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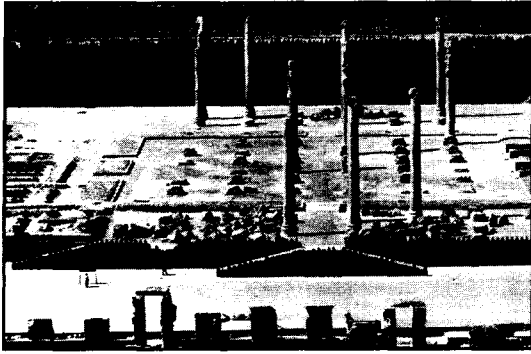
〈그림 1〉 페르시아인의 이동, H. Koch, 1992,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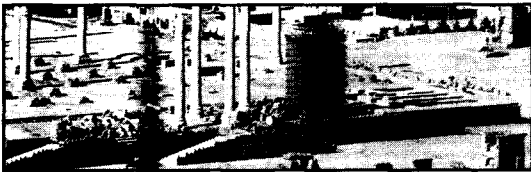
〈그림 1-1〉 다리우스 1세 때 페르시아 제국(기원전 521-486년), E. M. 번즈, p. 72

다리우스 황제는 페르세폴리스(그림 2)에 새 궁전을 짓기로 하고 “자비의 산”⁸⁾(Berg des Erbarmens)에 웅장한 사각형의 궁전을 짓기 시작했다. 그 궁전은 넓이 300m, 길이 455m, 높이 15m로 그 웅장함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이 궁전은 페르시아인들이 3월 21일인 그들의 새해를 기념하기 위해 사용했던 장소로 왕을 알현하는 알현실(이 알현실을 페르시아 인들은 아

4) 엘람(Elam, Elamite) - 티그리스(Tygris)강 동쪽의 자그로스(Sagros)산맥 일대인 이란고원을 가리키는 옛 지명 Michael Wood 마이클 우드, 강 주현 역 (1992). Legacy 인류최초의 문명들 서울: 중앙 M&B, p. 20.
5) G. Walser, op. cit., p. 7.
6) H. Koch, op. cit., p. 9.
7) W. Hinz, op. cit., p. 68.
8) G. Walser, ibid., p. 7; H. Koch, ibid., p.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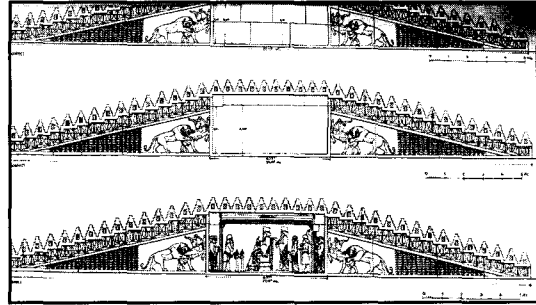


〈그림 2〉 페르세폴리스(궁터), H. Koch, 1992, Taf.(그림) 12



〈그림 3〉 아파다나, Apadana 계단⁹⁾, Taf.(그림)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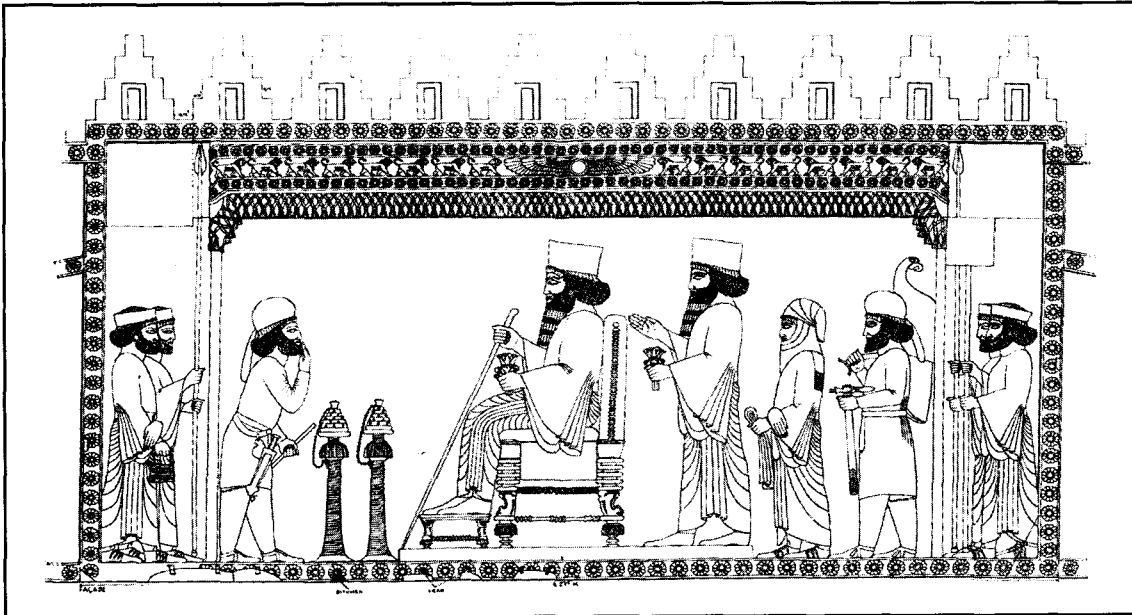
파다나 Apadana 홀이라 불렀다⁹⁾이 있었으며, 알현실로 향하는 계단(아파다나 Apadana 계단 -〈그림 3〉)에는 주변 종족들이 새해를 맞이해 왕에게 그들의 특산물을 바치는 조공도와 이 축



〈그림 4〉 알현도와 아파다나 계단, Ann Britt Tilia, 1972, 그림 3, 5
 제에 초대된 귀족들이 왕 앞으로 행진하는 모습이 부조로 새겨져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궁전은 알렉산더 대왕의 침입으로 불타 없어지고, 지금은 알현실로 들어가는 계단의 일부만 남아 있는데, 이 중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이 아파다나 동쪽 계단 중앙에 다리우스 왕을 알현하는 알현도이다(그림 4, 4-1). 오늘날 이 알현도는 테헤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중앙에 왕이 의자에 앉아서 오른쪽을 보고 있고, 그의 발은 조그만 발 받침대 위에 놓여있다.

오른손에는 끝이 뾰족한 긴 막대기를 들고 있고 왼쪽 손에는 2개의 꽃 봉우리가 있는 연꽃을



〈그림 4-1〉 알현도, H. Koch, 1992, p. 94

9) H. Koch, *ibid.*, p. 79.

10) Ann Britt Tilia(1972). *Studies and restorations at persepolis and other sites of Fars*, Rome: IsMeo, 그림 3

들고 있다. 왕 뒤에는 왕자가 서 있고, 왕자도 왼손에 왕과 같은 2개의 꽃 봉우리가 있는 연꽃을 들고 있다. 왕과 왕자는 머리에는 티아라(Tiara)라고 하는 간단한 실린더 모양의 높은 왕관¹¹⁾(그림 5)을 쓰고 주름잡힌 로브 식의 긴 페르시안드레스(Persiandress)¹²⁾를 입고 있다.

왕자 뒤에는 하인이 왕과 왕자가 입은 것과 같은 옷을 입고, 머리에는 바실릭(Baschlik)이라는 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 모자는 이란의 유목민족 사이에서 널리 쓰여졌던 모자로 가죽이나 펠트로 만들며 유목생활에 알맞게 머리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¹³⁾. (그림 6).



〈그림 5〉 티아라(Tiara), G. Thomson, p. 125,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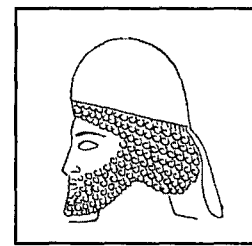


〈그림 6〉 바실릭(Baschlik), H. Koch p. 96, 그림 46

하인 뒤에는 오른손에 활과 화살을 집어넣는 용기인 고리트(Goryt, 고리토스, Gorytos(그림 7))를 든 군인이 서 있는데, 이는 원래 메디아에서 쓰던 활집이다¹⁴⁾. 그의 왼손에는 칼집에



〈그림 7〉 고리트(Goryt)를 들고 서 있는 군인, D. Head, p. 26, b



〈그림 8〉 반원형의 메디아인 모자, G. Thomson, p. 126, h

들어 있는 짧은 칼을 들고 있다. 이 사람은 앞에 서술 한 세 사람과는 다르게 로브 식의 주름잡힌 긴 옷(Persiandress) 대신 유목민의 전형적

인 옷인 바지와 저고리를 입고 있다. 저고리는 소매가 좁고 무릎까지 오며 허리에서 허리띠로 묶여지고 있고, 그 밑에는 아래로 갈수록 통이 좁아지는 바지를 입고 있다. 머리에는 반원형의 둥근 모자를 썼는데, 이는 메디아 인이 쓰는 모자로 머리 뒤 중앙에서 어깨 위까지 늘어져 있는 두 끈이 있는데, 앞에서는 한 끈 만 보인다¹⁵⁾(그림 8).

왕 앞에는 두 개의 향로¹⁶⁾가 연이어 서 있고 그 앞에 왕의 의전단 파르나카(Farnaka)¹⁷⁾가 왕을 알현하는 모습으로, 허리를 약간 구부리고 오른손은 입에 대고 왕에게 무엇인가 알리는 태

11) 티아라는 이란의 모자, 왕관등을 말하는 그리스 말이다. 갈(H. v. Gall) 과 톰슨(G. Thomson) 은 이 왕관을 티아라(Tiara) 라고 했다. Hubertus von Gall 후베르투스 폰 갈 (1972). Persische und medische Staemme 페르시아와 메디아 종족들, in Archaeologische Mitteilungen aus Iran 이란에 대한 고고학 보고서, Band 5, Berlin, p. 268; George Thomson(1965), Iranian Dress in the Achaemenian Period, in Iran, Vol. III, London, p. 125. 이 티아라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여기서는 머리 덮개를 의미하는 총체적인 의미로 쓰인 것 같다.

12) 이 옷은 Persiandress 혹은 Mediandress로 불려지며 이 명칭에 대해서는 아직도 어느 하나로 통일하지 못하고 논란 중이다.

13) H. Koch(1993). Medische Kappen und andere alte Huette 메디아의 모자 및 기타 고대의 모자, Wiesbaden, p. 131, 132; G. Thomson, ibid, p. 125.

14) E. F. Schmidt(1953). Persepolis I 페르세폴리스 I, p. 66, 그림 64, 65; Stefan Bittner 스테판 비트너(1985), Tracht und Bewaffnung des persischen Heeres zur Zeit der Aachameniden 아케메네스 시대 페르시아 지배자들의 복식과 무기 Muenchen: Verlag Klaus Friedrich, p. 208, 209.

15) W. Hinz, op. cit., p. 63, 그림 19; H. v. Gall, op. cit., p. 275; H. Koch, op. cit., p. 118; G. Walser, op. cit., 그림 47; G. Thomson, op. cit., p. 126.

16) 이 향로는 원래 옆으로 나란히 세워 놓은 것인데, 페르시아의 조각에 나타나는 규율에서는 항상 앞뒤로 놓인 것처럼 표현된다. G. Walser, ibid, p. 12.

17) H. Koch(1992), Es Kuendet Dareios der Koenig... 다리우스 왕이 이르기를... p. 36,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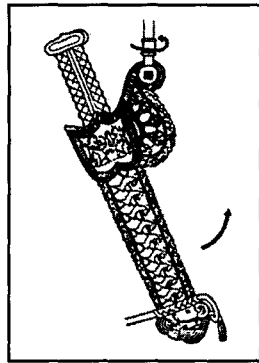


〈그림 9〉 왕의 의전단, W. Hinz, 그림 19

도를 취하고 있는데, 아마 조공을 바치려는 주변 종족들의 도착을 왕에게 알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짐작된다¹⁹⁾. 〈그림 9, 4-1〉. 이 의전단도 무기를 들고 서 있는 군인처럼 소매가 좁은 무릎까지 오는 긴 저고리와 바지를 입고 있다(그림 4-1). 왕의 의전단은 허리띠 오른쪽에 아키나케스(Akinakes)²⁰⁾(그림 10, 10-1)라는 작은 칼을 차고 있다. 머리에는 위에 무기를 든 군인이 쓰고 있는 반원형의 모자를 쓰고 있다(그림 9). 이 왕의 의전단을 후베르투스 폰 갈(Hubertus v. Gall)은 메디아의 귀족이라고 보고 있다²¹⁾.



〈그림 10〉 아키나케스(Akinaker), G. Walsler 그림 55



〈그림 10-1〉 아키나케스, H. Koch, p. 99, 그림 48, S. Bittner, 그림 31-3

지금까지 묘사한 사람들은 모두 큰 천개(Baldachin)²²⁾ 밑에서 있다. 이 천개의 중앙에는 사자들이 왼쪽 오른쪽 양쪽에서 중앙의 아후라 마즈다(Ahura-Mazda)²³⁾의 표시인 날개 달린 태양을 향해 움직이고 있고, 연꽃무늬 행렬이

이 사자들을 위 아래로 감싸고 있으며, 아래 연꽃 무늬 행렬 밑에는 끝을 술로 장식한 연결고리들이 장식되어 있다.〈그림 4-1〉

천개 밖 양쪽으로 각각 두 명의 왕의 파수꾼들이 긴 창을 들고 서 있다. 왼쪽 앞에서 서 있는 파수꾼은 오른손에 작은 양동이를 들고 서 있는데(그림 11), 여기에는 향로에 지필 솥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⁴⁾. 이 파수꾼들은 모두 왕, 왕자, 왕의 하인들이 입은 것과 같은 로브 식의 주름잡힌 긴 옷(Persiandress)을 입고 있으며 모자로는 왕이 쓴 것과 같은 모양이나, 높이가 더 낮은 모자²⁵⁾를 쓰고 있다(그림 12).



〈그림 11〉 양동이를 들고 서 있는 하인, H. Koch, 171, 그림 121



〈그림 12〉 창을 든 파수꾼의 모자, G. Thomson, p. 125, a

III. 아파다나 계단에 있는 알현도에 묘사된 복식

앞에서 살펴 본대로 위 알현도에서 우리는 두 가지 형태의 의복을 볼 수 있다. 하나는 페르시아안 드레스으로 로브 식의 주름 잡힌 긴 옷이고, 다른 하나는 메디아인(Median)의 옷으로 소매가 좁고 무릎까지 오는 긴 저고리와 바지의 형태이다.

19) W. Hinz, op. cit., p. 63; *ibid.* cit., p. 97.

20) E. F. Schmidt, op. cit., p. 165, 그림 68.; S. Bittner, op. cit., p. 56, 199, 200, 그림 31-3; H. Koch, *ibid.*, p. 97.

21) H. v. Gall, op. cit., p. 275.

22) 천개(Baldachin)에 대해서는 Ann Britt Tilia의 *Studies and Restorations at Persepolis and other sites of Fars*, p. 183-188 참조.

23) 이란 최고의 신 - 이란의 종교 조로아스터교에서 선지자 조로아스터(자라투스트라, Zharathustra)의 가르침에 따른 이란 최고의 신(H. Koch, op. cit., p. 305)

24) H. Koch, *ibid.*, p.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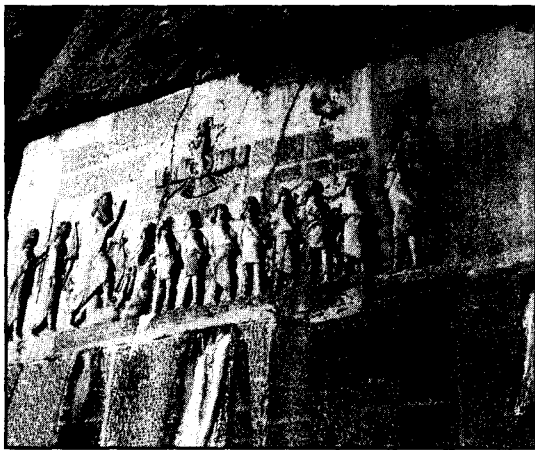
25) 이 모자는 왕이 쓰는 왕관 보다 낮은 것으로 그 높이는 약 7cm 정도이며, 군인들이나, 궁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썼다고 한다. W. Hinz, op. cit., p. 76, 그림 29; H. v. Gall, op. cit., p. 267.

1. 페르시아인 드레스(Persian dress) - 엘람의 영향

이 로브 식의 주름 잡힌 긴 옷은 아케메네스 왕조 시대에 페르시아 인들이 입었던 전형적인 페르시아 옷이다. 이 옷에 대해 국외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 왔으나 항상 논란이 거듭되어 왔던 대상이므로 우선 이 옷의 유래에 대해 몇몇 학자들의 주장을 나열해 보면, 크세노폰(Xenophon)은 “키로스 왕이 이 옷을 메디아인으로부터 받아 들였다”²⁶⁾고 설명했다. 또한 독일의 고고학자 발터 힌즈(Walter Hinz)와 페터 칼마이어(Peter Calmyer)는 이 옷은 엘람인의 옷으로 후에 페르시아에 전래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²⁷⁾. 앞의 역사적 배경에서도 설명했지만, 페르시아 인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했던 곳 안잔(Anzan, 새로운 파르샤, Persis) 지방은 엘람인들의 땅이었다. 페르시아는 이곳에서 엘람인과 동맹관계를 맺고 살면서 150년간 엘람인의 영향을 받으며 살았는데, 그것은 후에

페르시아 문화에 새겨져 전해지고 있다. 그 한 예로, 기원전 520년에 다리우스 황제가 그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비스툼(Bisutun, Behistun) 기념비<그림 13>에 엘람어로 비문을 작성한 것인데 이는 아직 고대 페르시아어가 없었을 때 엘람어를 사용한 것으로 페르시아 문화에 미친 엘람인의 영향을 볼 수 있는 좋은 증거이다²⁸⁾.

한스 하인리히 쉐더(Hans Hainrich Schaefer)는 그의 저서 “페르시아 제국(Das persische Weltreich)”²⁹⁾에서 페르시아의 로브 식의 주름 잡힌 긴 옷은 엘람인의 옷이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힌 사람이다. 그는 페르시아인의 복식이 고대이란인들이 입었던 유목민들의 긴 저고리와 바지로 표현되지 않고 엘람인들처럼 주름 잡힌 긴 로브 식의 옷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 두 옷은 아주 똑 같은 형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위의 사실들을 보충하고 있다. “아케메네스 시대 페르시아 인들은 그들의 서쪽 문화민족인 엘람인의 옷을 전해 받았는데 이는 키로스황



<그림 13> 비스툼, Bisutun, H. Koch, Taf.(그림) 1



<그림 14> 파사르가대에 있는 키로스 황제 조각 파편, H. Koch, p.204, 그림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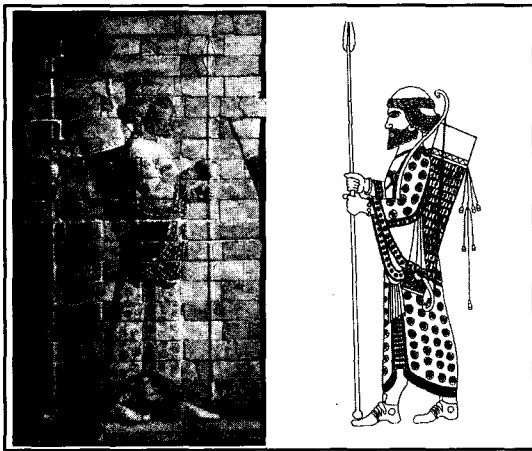
제 때까지이며, 이는 파사르가대(Pasargadae)³⁰⁾에 있는 키로스 황제 조각품의 파편 조각에서 증명되고 있다.”³¹⁾<그림 14>

위 알현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주름잡힌 긴 옷은 엘람국의 수도였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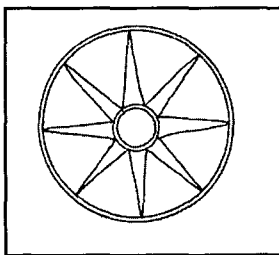
26) Xenophon 크세노폰, Kyr. 키로스 VIII, 1, 40, VIII 3, 1-5. Zur Einfuehrung der medischen Tracht 메디아 민속복의 개설; H. Koch, op. cit., p. 203.
 27) Gerold Walser(1966), Die Voelkerschaften auf den Reliefs von Persepolis 페르세폴리스 부조에 묘사된 주변 종족의 사신들, Berlin: Verlag Gebr. Mann, p. 72; W. Hinz, op. cit., p. 63, 70; S. Bittner, op. cit., p. 98; Peter Calmeyer(1988), Archaeologische Mitteilunga aus Iran 21 이란에 대한 고고학 보고서, 27ff;
 28) Heinz Luschey 하인즈 루샤이 (1968), Studien zu dem Dariusrelief vom Bisutun 비스툼에 있는 다리우스 조각에 대한 연구, in AMI(Archaeologische Mitteilungen aus Iran), Neue Folge Band 1 이란에 대한 고고학 보고서, 새로나온 책 1, Berlin, p. 63-94.
 29) Hans Heinrich Schaefer, Das persische Weltreich 페르시아 제국, [Breslau, o.J.=1941] p. 13-14; W. Hinz, op. cit., p. 70.
 30) 아케메네스 시대 키로스(Kyros) 황제때 첫 번째 수도, H. Koch, op. cit., p. 306.
 31) W. Hinz, op. cit., p. 70.

수사(Susa)에서 발견된 벽돌에 그려진 다리우스 왕의 파수꾼에서도 관찰되는데, 이 왕의 파수꾼은 무늬 있는 옷을 입었을 뿐 그 기본형은 위 왕의 알현도에서 본 것과 같은 것이다.

이 옷은 소매 끝과 밑 부분에 무늬 있는 단 처리가 되어있고, 소매 중간에는 연꽃의 봉우리와 연꽃 핀 모양의 무늬가 번갈아 교차되며 표현되어 있다(그림 15). 이 옷은 태양의 빛을 상징하는 주황(노랑)색 바탕에 옷 전체에는 원 속에 팔각형 모양의 별 무늬(그림 16)가 들어가 있는데, 이는 전쟁의 여신 이스타(Istar, Astarte)를 상징한다고 한다.³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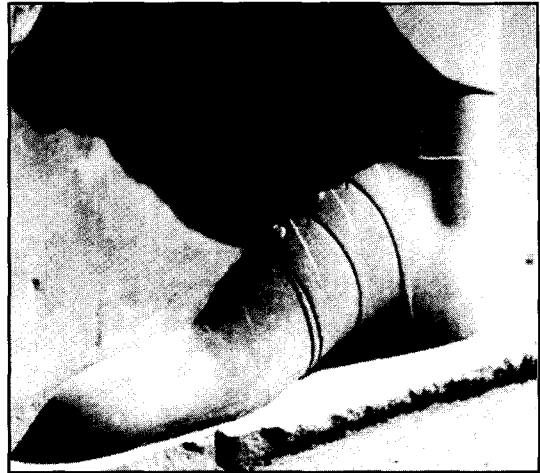
〈그림 15〉 수사, Susa에서 발견된 다리우스 왕의 파수꾼, H. Koch, Taf.(그림) 7, S. Bittner, 그림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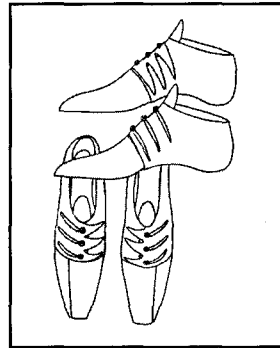
〈그림 16〉 옷에 새겨진 무늬 상세도, S. Bittner, 그림 3-1

이 군인은 머리에 꼬여진 머리띠를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엘람인의 전형적인 스타일이다³³⁾.

이 군인이 신은 신발은 끈이 세 개이고 그 위에 단추가 달렸으며, 신의



〈그림 17〉 끈이 3개인 신발, W. Hinz, 그림 26, A. Salonen, 1969, 그림 34



〈그림 17-1〉 상세도, S. Bittner, 그림 9-3

윗 부분은 접혀있다. 이 신은 엘람인이 주름잡힌 로브식의 긴 옷을 입을 때 맞추어 신는 전형적인 신발이다³⁴⁾

〈그림 17〉. 수사(Susa)의 다리우스 왕의 파수꾼의 복식(주름잡힌 긴 옷, 머리띠,

신발)형태가 페르제폴리스의 아파다나 계단에 부조된 창을 들고 줄지어 서 있는 페르시아 군인의 모습³⁵⁾(그림 18)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로 하여금 복식을 통한 두 지역의 연관성을 짐작하게 한다.

이 아파다나 계단에서 페르시아군인의 모습은 위 알현도(그림 4-1)에서 창을 들고 서 있는 페르시아 군인의 모습과 거의 일치하나, 머리띠의 형태가 달라졌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파다나 계단에 나타난 페르시아 군인들의 꼬인 머리띠(그림 19)가 위 알현도에서 창을 들고 서 있는

32) W. Hinz (1976), Darius und Perser 다리우스 황제와 페르시아인, p. 21, p. 295; S. Bittner, op. cit., p. 116.

33) W. Hinz(1969), Alt iranische Funde und Forschngen, p. 76; H. v. Gall, op. cit., 264, 265, 그림 70-3, 7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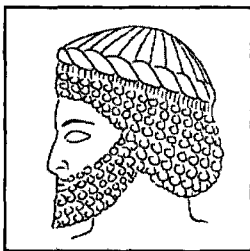
34) A. Salonen(1969), Die Fussbekleidung der alten Mesopotamier nach sumerisch-akkadischen Quellen 수메르와 아카드의 문서에 나타난 옛 메소포타미아의 신발에 대한 연구, Taf.(그림) 34; W. Hinz, ibid., 76, 그림 26; S. Bittner op. cit. 그림 9-3.

35) H. Koch, op. cit. p. 121, 그림 81.



〈그림 18〉 아파다나 계단에 부조된 페르시아의 왕의 파수꾼, R. Ghirshman, 1964, 178, 그림 218

페르시아 파수꾼들에서는 꼬이지 않은 평평한 형태로 나타난다. 여기에 대해 발터 힌쯔는, 엘람 인이 했던 꼬여진 머리띠 형태가 후에 페르시



〈그림 19〉 꼬인 머리띠, G. Thomson, p. 126. a



〈그림 21〉 끈이 없는 신발, W. Hinz, 1969, 67, 그림 26-2



〈그림 20〉 주름 잡힌 로브 식의 긴 옷을 입은 엘람 안, G. Walser, 그림 32

아에서 꼬임이 없는 평평한 모습으로 변형된 것이며, 그 폭은 약 7cm 라고 했다³⁶⁾.

이와 같은 복식의 형태는 아파다나 계단의 조공도에 새겨진 엘람 인에서도 관찰되는데³⁷⁾〈그림 20〉, 여기에서 엘람 인들은 끈이 6개이고 그 위에 단추가 달린 반장화를 신고 있다³⁸⁾. 이 반장화는 엘람 인들이 들에 나갈 때 신는 신인데³⁹⁾ 주로 활동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끈이 6개인 반장화를 신은 듯하다.

한편 끈이 없는 신 또한 위 알현도에서 관찰되는데 왕과 왕자는 끈이 없는 신을 신었다〈그림 21〉.

2. 바지와 저고리 - 메디아의 영향

오랜 기간 동안 페르시아는 메디아의 신하처럼 지내왔는데, 기원전 550년 키로스 대왕이 페르시아의 세력을 넓혀나가면서 메디아는 그 이전과는 반대로 페르시아의 신하 나라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오랜 기간 메디아의 지배를 받아 온 페르시아는 메디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중 페르시아의 나라의 기초를 만드는 법규, 사회규범, 재판에서의 기본적인 틀등과, 궁전에서 왕과 신하, 귀족들의 행동과 표현등은 메디아에서 받아들인 것이었다⁴⁰⁾.

또한 가시적인 모습에서도 메디아의 영향이 관찰되는데, 위 알현도에서 왕 앞에서 있는 왕의 의정관의 태도와 그의 복식을 통해서이다.

그의 복식은 앞에서 설명 한대로, 머리에는 반원형의 형태에 뒤에 두 개의 끈이 달려있는 모자를 쓰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메디아인의 모자이다. 옷으로는 소매가 좁고, 무릎까지 오는 긴 저고리를 입고 있으며, 이 저고리는 허리에서 끈으로 묶여지고 있다. 허리띠 오른쪽에는 아키나케스(Akinakes)〈그림 10〉라고 하는 짧은 칼이 장식되어 잘된 칼집에 들어가 있는 채로 묶여져있

36) W. Hinz, op. cit., p. 76.

37) G. Walser, Persepolis, 그림 36; W. Hinz, op. cit., 그림 28; H. Koch, op. cit., 그림 51.

38) H. v. Gall, op. cit., p. 265; A. B. Tilia, op. cit., 그림 CLXXI

39) W. Hinz, op. cit., p. 76.

40) W. Hinz, ibid., p. 63.



〈그림 22〉 아파다나계단 조공도에서 긴 바지저고리를 입은 메디아인



〈그림 23〉 긴 저고리와 바지를 입은 군인
- 옥서스 발견품, S. Bittner,
그림 29

다. 저고리 밑에는 밑으로 갈수록 통이 좁아지고 길이는 복숭아 뼈까지 오는 바지를 입고 있다⁴¹⁾. 이 바지는 유목복식의 한 부분으로 메디아인의 전형적인 옷이다⁴²⁾.

이 긴 저고리와 바지의 형태는 아파다나 계단의 조공도에서도 메디아인의 복식으로 분명히 관찰할 수 있

다⁴³⁾〈그림 22〉. 또한 이 옷은 옥서스(Oxus)에서 발견된 보물품 중에서도 발견 되는데, 긴 저고리에 줄친 것을 제외하면 같은 형태의 저고리와 바지의 모습이고, 허리띠와 칼 찬 모습도 알현도의 것과 같다⁴⁴⁾〈그림 23〉.

여 페르세폴리스(Persepolis)에 나라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원래 그 지역에서 이미 높은 문화를 가지고 있던 엘람인들과 메디아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영향은 국가를 만드는 법에서부터 궁중의 예법등 문화 전반적인 분야에 나타나고 있었다.

페르세폴리스 궁전 아파다나 계단에 남아 있는 왕의 알현도에 새겨진 복식을 지금까지 외국에서 연구된 고고학적 미술사적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아파다나 계단 왕의 알현도에는 두 가지 형태의 옷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페르시아 드레스로 불리는 로브식의 주름 잡힌 긴 옷이고, 다른 하나는 바지, 저고리의 형태이다. 페르시아 복식을 대표하는 로브 식의 긴 주름잡힌 페르시아인 드레스는 페르시아 시대 이전에 그 곳에서 높은 문화를 가졌던 엘람인의 옷으로 페르시아는 그 옷을 자기들의 옷으로 수용했다. 알현도에는 왕, 왕자, 왕의 파수꾼, 또 하인이 입고 있어 페르시아에서 이 옷이 궁정복으로도 보편화되어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전형적인 유목민족의 옷인 바지 저고리를 알현도에서는 왕의 의전단인 메디아인이 입고 있는데 저고리는 소매가 좁고 길이는 엉덩이까지 오며 바지는 통이 좁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형태이다. 여기에서는 또한 옷 이외에 국적과 신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머리 덮개(모자)가 관찰되는데 이는 그 시대 페르시아와 주변국들의 관계에서 페르시아의 복식문화를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참고문헌

E. M. Burns, R. Runner, S. Michum, 박상익 역
(1995), 서양문명의 역사 I, 서울 : 소나무

IV. 결론

페르시아 민족은 북쪽으로부터 남으로 이동하

41) Geo Widengren(1956), Some Remarks on Riding Costume and Articles of Dress among Iranian Peoples in Antiquity, in Studica Ethnographica Upsaliensia, XI, Arctica Uppsala, p. 235, p. 228-276.

42) S. Bittner, op. cit., p.186. 이 바지는 'Amaxyrides'라고 한다 - Herodotus 헤로도투스, 제 1권, 71, 제7권, 61.

43) G. Walser, op. cit., p. 70; H. Koch, op. cit., p. 99, 그림 50

44) E. Porada, (1972), p. 170, 그림 87; S. Bittner, op. cit., 그림 29.

- Henrietta McCall, 임 응 역(2000). 「메소포타미아 신화」. 서울: 범우사.
- Herodotus 박광순 역(2002). 「역사」. 서울: 범우사
- Michael Wood. 강주현 역(1992). 「Legacy 인류최초의 문명들」. 서울: 중앙 M&B
- Great Mounments of the Ancient World 4(1988). Tokyo, Kondanscha Ltd.
- A.Salonen(1969). Die Fussbekleidung der alten Mesopotamier nach sumerisch-akkadischen Quellen 수메르와 악카드의 문서에 나타난 옛 메소포타미아의 신발에 대한 연구, Helsinki
- A.Res, The Achaemenid Robe(1951). in Bibliotheca Orientalis 8, Leiden. PP. 137~141
- Ann Britt Tilia(1972). Studies and restorations at persepolis and other sites of Fars : IsMeo-Rome
- B.Goldman(1964). Orgin of the Persian Robe, in IrAnt 4.
- Duncan Head(1992). The Achaemenid Persian Army, Stockport, Montvert Publications.
- E.F.Schmidt(1953). Persepolis I 페르세폴리스 I. Oriental Institute Publications 68, Chicago, Univers. Press.
- Ehsan Yarshater edited by(1992). Encyclopaedia Iranica Vol. V, Costa Mesa, Califoni: Mazda Publishers.
- Geo Widengren(1956). Some Remarks on Riding Costume and Articles of Dress among Iranian Peoples in Antiquity. in Studica Ethnographica Upsaliensia, XI, Arctica, Uppsala PP. 228~276.
- George Thomson(1965). Iranian Dress in the Achemenian Period, in Iran, Vol. III, London PP. 121~126
- Gerold Walser. 게롤트 발저(1980). Persepolis 페르세폴리스, Tuebingen: Ernst Wasmuth.
- Gerold Walser(1966). Die Voelkerschaften auf den Reliefs von Persepolis 페르세폴리스 부조에 묘사된 주변 종족의 사신들. Berlin: Verlag Gebr. Mann.
- Heidmarie Koch 하이데마리 코흐(1992). Es kuendet Dareios der Koenig... 다리우스왕이 이르기를....., Mainz/Rhein: Philipp von Zabern.
- H.Koch(1993). Medische Kappen und andere alte Huette 기타 고대의 모자. in Achaemeniden-Studien,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PP. 117~134.
- Heinz Luschey 하인쯔 루샤이(1968). Studien zu dem Dariusrelief vom Bisutun 비스툰에 있는 다리우스 조각에 대한 연구. in AMI(Archaeologische Mitteilungen aus Iran. Neue Folge Band 1 이란에 대한 고고학 보고서. 새로나온 책 1, Berlin, PP. 63~94.
- Hubertus von Gall 후베르투스 폰 갈(1972). Persische und medische Staemme 페르시아와 메디아 종족들. in Archaeologische Mitteilungen aus Iran, Band 5, Berlin, PP. 261~283.
- Ingrid Loschek 잉그리드 로셱(1999). Reclams Mode - & Kostuem Lexikon. Stuttgart: Phillipp Reclam jun.
- P.Beck(1972). A Note on the reconstrucktion of the Achaemenid Robe. in Iranica Antiqua, Vol. 9, Leiden, PP. 116~122.
- Roman Ghirshman(1964). Iran, Muenchen: Verlag C. H. Beck.
- Stefan Bittner 스테판 비트너(1985). Tracht und Bewaffung des persischen Heeres zur Zeit der Aachaimeniden 아케메네스 시대 페르시아 지배자들의 복식과 무기 Muenchen:Verlag Klaus Friedrich.
- Walter Hinz 발터 힌즈(1969). Altiranische Funde und Forschungen 고대이란의 발견품과 그 연구, Berlin: Walter de Gruyter & Co.
- W.Hinz(1976). Darius und Perser 다리우스 황제와 페르시아인, Baden-Baden.